

30주년 건협에 바란다

올바른 건강개념 심어주길...



김 상 인

인천 길병원장 · 건협 부회장

건협은 그 동안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으며 협회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건협의 활동은, 임의 단체로서 예산상 자급자족을 하여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제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협회 본연의 목적 사업을 많이 희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수혜 현황도 이제 그런 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건협의 사업 방향도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계몽, 교육 및 조사 연구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건강 지표를 얻어야 하

며 대민 봉사를 겸한 건강 검진 사업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의 보건 의료 정책 방향도 초기에는 환자에 대한 의료시혜가 가장 시급하나 그와 동시에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민의 총체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육체적·지적 활동능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고 동시에 국민 총생산 능력을 높여 가는 것이 복지사회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시점은 의료 시혜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지만 특히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시책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국가 보건 의료 정책 즉 건강관리협회의 사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과 건협에 대한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수 불가결한 선행 요건이며 따라서 이 글에서 바라는 내용은 건협과 정부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1978년에 국민학교 아동의 건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데 그 조사 결과 서울 시내 사립 국민학교 아동들이 농어촌 아동들보다 상당히 낮은 평균 혈색소치(빈혈 상태)를 나타낸 것을 보았으며 그 원인을 분석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 소아 및 소년기의 아이들과 특히 가임 여성들의 평균 혈색소치는 아직도 상당히 낮고 그들 중에는 상당히 심한 철결핍성 빈혈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혈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적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혈색소치 내지 빈혈은 아이들의 성장, 건강, 두뇌발달, 판단능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가임 여성의 빈혈은 태아의 발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는 빈혈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 아직 각각 지역별, 연령별, 성별 또는 특수 직업별 등으로 믿을 만한 기초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계몽 내지 교육도 잘 되어있지 못하다. 빈혈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 보았으나 건강 지표 내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완급을 가려 가면서 건협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대단히 많다.

**국민 건강증진
위한
계몽, 교육, 조사연구로
사업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너무 과다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요즘은 마스크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많이 선전되고 있는 건강 식품, 질병 예방 식품, 민간치료법 등을 보면서 그 선전대로라면 우리 나라 국민은 모두가 건강하고 무병 장수할 것 같은 착각을 갖는다. 국민이 호도되지 않도록 건강 개념을 심어 주는 것도 건협의 역할인 것이다. 완급을 가려서 일반사업 외에도 해마다 중점사업 항목을 정하여 꾸준히 국민의 계몽과 교육 및 중점 조사 연구를 하고 국가의 보건의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건협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한다.

예를 든다면 지속적인 기생충 감염 조사 연구 사업, B형 및 C형 간염에 대한 연령별·지역별 조사 연구, 고혈압·당뇨병 등 성인병에 대한 혈중지질치 또는 혈당치의 연령별·지역별 변동추이,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소아당뇨병 빈도 조사, 선천성 심장질환 빈도, 대사성 질환에 대한 조사, 유소아의 지역별·성별 발육 추이 등등 많은 조사 연구와 계몽대상이 건협의 획기적인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㉞